

또래괴롭힘 집단의 유형에 따른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

Marital Conflict,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a
Child's Friendship Quality as a Function of Bully/Victim Group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황은영*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교수 도현심**

박사과정 신정희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Master : Hwang Eun-Yo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Professor : Doh, Hyun-Sim

Doctoral Course : Shin, Ju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at marital conflict,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a child's friendship quality varied as a function of bully/victim groups. A sample of 227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Children answ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 friendship quality, and bullying/victimization and mothers rated their marital conflict.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factor analysis, one-way ANOVAs, and Duncan's post-hoc analyses. The bully/victim distribution was 8.4% bullies, 7.9% victims, 4.4% bully-victims, and 79.3% normative contrasts when reported by children themselves and 9.3% bullies, 4.8% victims, 5.3% bully-victims, and 80.6% normative contrasts when reported by peers. Bullies and bully-victims experienced higher marital conflict than normative contrasts. Bully-victims perceived higher maternal warmth than bullies and both bullies and victims perceived higher maternal rejection/punishment than normative contrasts. Victims perceived their mothers to be more permissive/neglected than normative contrasts, and bully-victims perceived them to be more overprotective than both bullies and normative contrasts. Both bullies and bully-victims showed higher negative function of friendship quality than victims.

▲주요어(Key Words) : 또래괴롭힘 집단(Bully/victim group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어머니의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 친구관계의 질(friendship quality)

* 주 저 자 : 황은영 (E-mail : virgo00@hanmail.net)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simdoh@ewh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또래괴롭힘은 1990년대 중반 집단 괴롭힘에 의한 피해학생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이를 경험하는 연령범위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되면서, 또래괴롭힘은 일종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또래 괴롭힘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Egan & Perry, 1998; Olweus, 1984) 그동안 학교, 학계 및 정부차원에서 그 피해를 줄이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현황 파악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또래괴롭힘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피해아에 초점을 두고, 또래괴롭힘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피해아 개인의 특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용태 · 박한샘, 1997; 손진희 등, 1998; 이경남, 2001; 이점숙 · 유안진, 1999). 그러나 또래 괴롭힘 현상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아의 개인적 특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또래 괴롭힘 상황에 개입되는 가해아는 물론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모두 보이는 가해/피해아를 포함함과 동시에 또래괴롭힘과 무관한 일반아를 일종의 대조집단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Pellegrini et al., 1999; Schwartz et al., 2001). 이러한 측면에서, 또래괴롭힘 집단은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각각의 정도에 따라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 집단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그림 1>).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또래괴롭힘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아 집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 집단의 분포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김혜원 · 이해경, 2000; 박영신 · 김의철, 2001; Karatzias et al., 2002; Kumpulai-

nen et al., 1998; Schwartz, 2000). 국내연구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인 4~6학년 아동 가운데 가해아는 14.42%, 피해아는 15.19%, 가해/피해아는 18.27%, 일반아는 52.12%로 나타난 연구결과(서미정 · 김경연, 2004)가 보고되는가 하면,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보경, 2002)의 경우 가해아는 9.92%, 피해아는 9.31%, 가해/피해아는 5.80%, 일반아는 74.96%로 보고되는 등 각 집단의 분포가 다르다. 그 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일반아, 가해아, 가해/피해아, 피해아 집단의 순으로(김혜원 · 이해경, 2000; 이준재 · 광금주, 200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박영신 · 김의철, 2001)에서는 일반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가해아 집단의 순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Kumpulainen et al., 1998)에서 가해아는 8.1%, 피해아는 11.3%, 가해/피해아는 7.6%, 일반아는 73.0%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Schwartz, 2000)에서는 가해아는 15.77%, 피해아는 13.46%, 가해/피해아는 6.92%, 일반아는 63.8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아를 제외하고 또래괴롭힘에 직접 관여된 아동들이 대략적으로 30~50% 범위에 속하는 등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학령기 후기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어, 학령기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또래괴롭힘 집단 분포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또래괴롭힘 문제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김연하 · 김영아, 2007; 김영아 · 김연하, 2008; Nelson et al., 2005)에 기초할 때, 학령기 초기 아동의 또래괴롭힘 분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또래관계가 아동의 삶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면서(Bee, 1997), 이 시기의 아동은 유아기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또래관계망을 갖게 되는 점(Parker & Gottman, 1989)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아동이 10세 정도가 되면 발달특성상 또래집단의 구조가 뚜렷해지고 공식화되며, 특정 아동이 구성원들에게 동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여(장휘숙, 2001: 434-435), 또래괴롭힘 문제는 점차 증가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으로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가능해 보이는 3학년 아동을



<그림 1> 또래괴롭힘 집단의 유형(Schwartz et al., 1997)

대상으로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와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요인들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환경적 특성인 가족 맥락과 관련하여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중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Buehler et al., 1997),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Fauber & Long, 1991; Golberg & Easterbrooks, 1984) 아동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아동의 발달결과 간, 즉 양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잘 알려진 바와 달리, 또래괴롭힘 집단별 부부갈등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다. 몇 편 안되는 연구들 가운데, 가해아와 가해/피해아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가해아의 경우 성인의 폭력을 관찰하는 경험을 하였으나 성인으로부터 직접 폭력은 경험하지 않은 반면에, 가해/피해아는 관찰과 직접적인 폭력을 모두 경험하였다(Schwartz et al., 1997). 이는 공격적 특성을 공유하는 가해아와 가해/피해아 모두 부모의 폭력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학습하게 된다는 점에서, 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모델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가해아나 가해/피해아와 같이 일종의 공격적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그들 스스로 공격적 역할모델에 노출되어 관찰을 통해 공격적 행동을 학습함으로써,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괴롭힘 집단 가운데 특히 가해/피해아의 문제점을 강조한 국내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가해/피해아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공격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박보경 등, 2004).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피해아가 일반아보다 부모의 부부간 폭력을 더 많이 관찰하는 것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심선보, 2000). 즉, 피해아의 부모는 나머지 세 집단 보다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사용하였고, 가해아와 일반아 부모보다 비신체적 공격성 또한 많이 사용하였다(황정남, 2000). 이와 같이, 또래괴롭힘 집단별 부모의 부부갈등은 연구에 따라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또래괴롭힘 가운데 가해행동에 속하는 공격성에 치중되어 피해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래괴롭힘을 초래하는 가족관련 변인 중 또 다른 중요한 맥락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또래로부터 피해를 당하기 쉬운 행동을 촉진하거나(Olweus, 1993; Schwartz et al., 1997), 공격적 행동을 촉발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Olweus, 1993). 실제로 부모로부터 신체적 체벌과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은 보다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였으며(김민정, 2001; 김선미, 2005; 김효정, 1991; 노치영, 1998; Perry et al., 1988), 부모가 아동을 과보호적으로 양육하고 아동 또한

그렇게 지각할 때, 아동은 수동적 행동특성을 보이고, 나아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였다(도현심 · 최미경, 1998; Bowers et al., 1994; Olweus, 1993). 최근에는 어머니가 방임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이 또래로부터 보다 많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연구결과(김선미, 2005; 이경남, 2001)도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기초로, 몇몇 연구들은 또래괴롭힘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 별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으로 잘 알려진 온정 · 수용성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아는 어머니의 애정이 결핍되었거나(전재천, 2000), 부모의 지지가 부족하였다(이해경 · 김혜원, 2000). 또한, 가해아와 피해아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어머니로부터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양육되었다는 국외 연구결과(Perry et al., 1988)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피해아와 가해/피해아의 부모는 거부 · 제재적이거나 허용 · 방임적이었다는 연구결과(노경선 · 심희옥, 2004)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가해아와 피해아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안재진 · 이경남, 2002; 최은숙, 1999). 또한 청소년기 피해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한 국내연구(최미경 · 도현심, 2001)에서도, 피해아들은 거부 · 제재적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대화 부족과 같은 무관심 및 방임적 양육을 경험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 등과 같이 또래괴롭힘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아동들은 비온정적, 거부 · 제재적, 허용 · 방임적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같이 부정적 양육을 많이 경험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초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네 집단간의 차이를 명확히 밝힌 연구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서 또래괴롭힘 피해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보호적 양육(Finnegan et al., 1996; Schwartz et al., 1993; Schwartz et al., 1997)을 포함한 연구는 더욱 더 부족하다.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환경 특성으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변인들과 함께 손꼽히는 특성은 친구관계의 질이다. 그동안 또래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은 주로 또래집단에서의 지위 및 또래수용성과 같은 개념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또래관계의 또 다른 유형으로 아동이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친구관계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Berndt, 1996; Ladd et al., 1996). 친구관계의 질은 친구 간에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상호간에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며 아동의 사회 · 정서적 또는 도구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를 반영하는 변인으로(Sullivan, 1953), 또래괴롭힘과 또래거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Rubin et al., 2004).

친구관계의 질이 또래괴롭힘 집단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해이는 대체로 자신을 지지해주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2-3명의 또래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을 이루며(Cairns et al., 1988), 또 다른 가해아와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Pellegrini et al., 1999). 국외연구와 달리, 국내연구에서는 가해이는 일반아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친구에 대한 신뢰와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일반아보다 낮았으나, 가해/피해아나 피해아에 비해 친구관계의 질이 낮지는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다(이은혜 · 고윤주, 2004; 이춘재 · 박금주, 2000). 반면, 피해이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일 경우가 많고 또래와 원만한 친구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Pellegrini et al., 1999). 가해/피해아의 경우는 다른 아동에게 시비를 걸거나 비효과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논쟁을 자주 일삼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가해 상대를 화나게 하여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웠다. 또한, 일반아동들은 이러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이들은 또래관계 내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다(Perry et al., 1988; Perry et al., 1990; Schwartz et al., 1993). 이처럼 친구관계의 질에 있어서의 또래괴롭힘 집단간 차이는 충분히 예상되나, 친구관계의 질의 정도에 더해 그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능 측면에서의 집단간 차이는 불분명한 편이다. 다시 말하면, 또래괴롭힘 각 집단에 속한 아동이 경험하는 또래관계의 질이 정서적 안정, 신뢰, 혹은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기능을 하는지, 혹은 갈등이나 경쟁과 같은 부정적 기능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의 질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로서, 아동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해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박보경, 2002; 신유림, 2006; 정은희 · 이미숙, 2004; Hartup, 1996). 특히, 결혼의 질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나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Luster & Okagaki, 2005)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괴롭힘 집단의 유형에 따라 이러한 세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의 연령층이 점차 하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연구들이 주로 청소년이나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온 점에 비추어, 본 연구는 학령기 초기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동시에, 최근 들어 가해/피해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점에 비추어,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모두를 고려하여 아동을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 등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학령기 초기 아동의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를 비롯하여, 각 집단에 따라 또래괴롭힘의 관련 변인들 중 부부갈등, 어머니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또래괴롭힘 집단별 부모의 부부갈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또래괴롭힘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또래괴롭힘 집단별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남지역의 세 개 구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27명의 아동들(남아: 121명, 여아: 106명)로서, 그들과 그 어머니들이 응답에 참가하였다. 아동의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 아동으로 선정할 것은, 이 연령층은 아동의 삶 속에서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해짐(Bee, 1997)과 동시에 또래괴롭힘 역시 점점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Slee, 1994). 연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외동아가 15.0%, 첫째가 35.2%, 둘째가 44.1%, 셋째 이상이 5.7%이었으며,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82.8%이고 대가족이 17.2%로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모가 40-45세미만의 연령층에 속하였으며, 대학교 졸업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9.0%와 62.1%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과반수가 회사원 또는 교사(36.7%)와 전문직(25.7%)에 속했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64.8%)가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소득은 300-450만원(36.6%)과 450~600만원(27.3%)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크게 또래괴롭힘,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친구관계의 질 척도로 구성되며, 또래괴롭힘 척도에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척도와 또래괴롭힘 피해행동 척도가 포함된다. 또래괴롭힘은 아동 자신과 또래에 의해 보고되었는데, 이는 보고자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가 발견되는 점(김혜원 · 이해경, 2000; 양원경 · 도현심, 1999; 신유림, 2006)에 근거한 것이다. 부부갈등은 어머니에 의해,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의 질은 아동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1) 또래괴롭힘 척도

(1)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척도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척도는 Crick과 Werner(1998)가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SE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에 해당되는 공격성에 초점을 두어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그 중 직접적 공격성(5문항)과 관계적 공격성(5문항)에 관한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직접적 가해행동과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주먹질 한다',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별명을 부른다' 등이, 관계적 가해행동과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어떤 아이한테 화가 나면,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그 아이와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아이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나쁜 말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한다' 등이 포함된다. 또래괴롭힘의 직접적 가해행동 및 관계적 가해행동 요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양자 간에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국내외 연구결과들(박보경, 2002; Camodeca et al., 2002; Grotper, & Crick, 1996; Hart, Nelson et al., 1998; Nelson et al., 2006)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직접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보고용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된다. 자기보고에 의한 척도의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또래보고용은 첫 번째 행에 동성 급우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첫 번째 열에 자기보고용과 동일한 내용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시한다. 아동은 우선 첫 번째 행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한 후, 각 문항에 대해 문항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동성 급우들의 이름 아래에 3명까지만 V표를 한다. 또래보고에 의한 가해행동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해 동성의 급우들이 지명한 수를 백분율로 계산한 후, 각 문항의 백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즉, 가해행동 총점은 0~1000점에 속한다.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r=.28, p<.01$).

(2) 또래괴롭힘 피해행동 척도

또래괴롭힘 피해행동 척도는 Crick과 Bigbee(1998)가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Peer Report(SEQ-P)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EQ-P는 직접적 피해행동, 관계적 피해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의 수혜(receipt of prosocial acts)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행동에 초점을 두어 친사회적 행동의 수혜에 관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직접적 피해행동(4문항)과 관계적 피해행동(5문항)에 관한 문항들을 이용하였다. 직접적

피해행동과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맞는다', '나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등이, 관계적 피해행동과 관련된 문항에는 '집단 활동이나 놀이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화가 나서 집단에서 나를 따돌린다', '다른 아이들은 내 뒤에서 나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등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행동을 하나의 요인으로 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보고용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된다. 자기보고에 의한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또래보고용은 앞서 언급한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피해행동 총점은 0~900점에 분포한다.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래괴롭힘 피해행동의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간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r=.42, p<.01$).

2)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는 Grych와 그의 동료들(1992)의 부모간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어머니용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 해결(Resolution), 내용(Content),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 대처효율성(Coping Efficacy), 자기비난(Self-Blame), 삼각관계(Triangulation), 안정성(Stability) 등 9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부모간 공격성에 노출되었는지를 측정하고자 빈도 및 강도 요인 13문항만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항들 가운데 내용상 중복되는 1번과 8번 문항을 제외한 총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를 낮추는 두 문항(4번, 9번)을 제외하여 9문항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우리 부부는 자주 다툰다.', '우리 부부는 다투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75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총 39문항으로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및 과보호 요인 등 네 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별 10문항으로 구성된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요인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9문항으로 구성된 과보호 요인은 Doh와 Falbo(1999)의 과보호 척도 가운데 유아 취급행동(babying behavior) 요인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문항들은 원래의 척도와 동일한 요인에 속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온정·수용은 '내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다.' '내 기분을 잘 이해해

주신다.' 등이, 거부·제재는 '내가 야단맞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내시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나에게 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실 때가 자주 있다.' 등이, 허용·방임은 '내가 조르기만 하면 뛰든지 다 사주신다.',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 등이, 과보호는 '내가 어려서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서 돌보아 주신다.', '가끔씩 내가 음식 먹는 것을 도와주실 때가 있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온정·수용 .89, 거부·제재 .81, 허용·방임 .76, 그리고 과보호 .79이었다.

4) 친구관계의 질 척도

친구관계의 질 척도는 Furman과 Buhrmester(1985)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참고하여 이은혜·고윤주(1999)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3~5학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Friendship Quality Scale: FQ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 대해서 친구관계의 질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긍정적 기능(28문항)과 부정적 기능(8문항) 등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며, 긍정적 기능에는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그리고 '즐거움의 공유' 및 '만족감' 요인이, 부정적 기능에는 '갈등' 및 '경쟁' 요인이 포함된다. 문항의 예를 들면, 긍정적 기능의 경우 '나는 OO와 친구라서 행복하다.', '내가 슬플 때 OO는 나를 위로해준다.' 등이, 부정적 기능의 경우 '나는 OO와 말다툼을 한다.', 'OO는 나를 귀찮게 한다.' 등이 해당된다. 1~28번 문항은 '아주 조금 그렇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많이 그렇다(3점)', '아주 많이 그렇다(4점)'로, 29-36번 문항은 '그럴 때가 없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매우 자주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Likert식 4점 척도이다. 각 요인별로, 신뢰도를 낮추는 한 문항씩 두 문항을 제외하여 총 34문항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긍정적 기능 요인과 부정적 기능 요인의 Cronbach's α 는 각각 .96과 .79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지난 1년간의 또래관계를 바탕으로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고자 학년말인 2007년 2월 5~16일에 서울시 강남지역의 세 개 구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8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관한 또래보고용 질문지는 조사에 앞서 담임교사들로부터 아동 명단을 구한 후 각 학급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각 학급마다 혼련된 2명의 조사원이 들어가 아동에게 직접 질문지를 배부·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회수되었다. 이 때 아동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는 ID가 서로 일치하도록 유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용 질문지는 251부, 어머니용 질문지는 233부(회수율: 92.8%)가 회수되었다. 아동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가 모두 회수된 233부 가운데 부적절하게 응답한 6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27부의 아동용 및 어머니용 질문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 +12 program을 이용하였다. 우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양육행동 척도의 경우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또래괴롭힘 집단별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의 질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

또래괴롭힘 집단은 Schwartz와 동료들(1997)을 근거로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점수 각각의 'M(평균)+0.8SD(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 등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해아는 가해행동 점수가 'M+0.8SD' 이상이고 피해행동 점수는 M+0.8SD 미만인 경우, 피해아는 가해행동 점수가 'M+0.8SD' 미만이고 피해행동 점수는 M+0.8SD 이상인 경우, 가해/피해아는 가해행동 점수와 피해행동 점수가 둘 다 'M+0.8SD'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일반아는 가해행동 점수와 피해행동 점수가 둘 다 'M+0.8SD' 미만인 경우이다. 따라서 연구에 참가한 모든 아동들은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그리고 일반아 등 네 집단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기보고의 경우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평균은 각각 1.64(SD=.47)와 1.54(SD=.55)이었다. 각 집단별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기준 점수를 살펴보면, 가해아는 각각 2.02 이상과 1.98 미만, 피해아는 각각 2.02 미만과 1.98 이상, 가해/피해아는 각각 2.02 이상과 1.98 이상, 그리고 일반아는 각각 2.02 미만과 1.98 미만에 속한다. 또래보고에 의한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평균은 각각 10.13(SD=13.54)과 6.60(SD=11.70)이었으며, 각 집단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기준 점수는 가해아는 각각 20.96 이상과 15.95 미만, 피해아는 각각 20.96 미만과 15.95 이상, 가해/피해아는 각각 20.96 이상과 15.95 이상, 그리고 일반아는 각각 20.96 미만과 15.95 미만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자기보고에 의한 경우 가해행동은 가해아가 평균 2.37(SD=.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아가 평균 1.41점(SD=.2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피해행동의 경우, 가해/피해아가 평균

2.29점(SD=.48)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아가 평균 1.26점(SD=.28)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또래보고에서는 가해행동의 경우 가해/피해아가 평균 39.50점(SD=16.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아가 평균 4.82점(SD=6.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피해행동의 경우에서도 가해/피해아가 평균 33.62점(SD=16.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아가 평균 2.77점(SD=3.7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집단별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점수의 최소값/최대값을 살펴보면, 자기보고에 의한 경우 가해행동의 최소값은 피해아와 일반아가 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가해/피해아가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행동의 최소값은 가해아와 일반아가 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피해아와 가해/피해아 모두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또래보고의 경우, 가해행동의 최소값은 피해아와 일반아 모두 0.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최대값은 가해/피해아가 92.0점으로 가장 높았다. 피해행동의 최소값은 가해아와 일반아가 0.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최대값은 피해아가 76.0점으로 가장 높았다(<표 1>).

각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의 경우, 가해아는 19명(8.4%), 피해아는 18명(7.9%), 가해/피해아는 10명(4.4%), 일반아는 180명(79.3%)이

있으며, 또래 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의 경우 가해아는 21명(9.3%), 피해아는 11명(4.8%), 가해/피해아는 12명(5.3%), 일반아는 183명(80.6%)이었다(<표 2>).

2. 또래괴롭힘 집단별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3, 223)=4.83, p<.01$).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가해아와 가해/피해아 부모의 부부갈등은 일반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동시에 가해/피해아 부모의 부부갈등은 가해아의 경우와는 유사하나 피해아 보다 더 높았다. 반면, 부부갈등은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3. 또래괴롭힘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네 가지 양육행동 요인이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

<표 1> 또래괴롭힘 집단별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 (N=227)

집 단	자기보고				또래보고			
	가해행동		피해행동		가해행동		피해행동	
	평균(SD)	최소/최대 값	평균(SD)	최소/최대 값	평균(SD)	최소/최대 값	평균(SD)	최소/최대 값
가해아	2.37(.25)	2.11/3.00	1.39(.28)	1.00/1.89	31.00(9.34)	21.00/65.00	6.46(5.15)	0.00/15.00
피해아	1.75(.28)	1.00/2.00	2.26(.44)	2.00/4.00	8.23(7.98)	0.00/20.00	30.69(19.26)	16.00/76.00
가해/피해아	2.34(.39)	2.11/4.00	2.29(.48)	2.00/4.00	39.50(16.67)	21.00/92.00	33.62(16.72)	16.00/67.00
일반아	1.41(.29)	1.00/2.00	1.26(.28)	1.00/1.89	4.82(6.03)	0.00/20.00	2.77(3.78)	0.00/15.00

<표 2>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 (N=227)

집 단	자기보고		또래보고	
	빈 도	%	빈 도	%
가해아	19	8.4	21	9.3
피해아	18	7.9	11	4.8
가해/피해아	10	4.4	12	5.3
일반아	180	79.3	183	80.6
계	227	100.0	227	100.0

<표 3>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별 부부갈등 (N=227)

집 단	N	평 균	표준편차	F(df)	Duncan
가해아	19	2.18	.42	4.83** (df=3/223)	BC
피해아	18	1.97	.29		AB
가해/피해아	10	2.26	.19		C
일반아	180	1.92	.39		A

**p<.01

<표 4>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행동 (N=227)

어머니 양육행동	집 단	N	평 균	표준편차	F(df)	Duncan
온정 · 수용	가해아	19	2.45	.90	2.68* (df=3/223)	A
	피해아	18	2.91	.75		AB
	가해/피해아	10	3.16	.58		B
	일반아	180	2.83	.68		AB
거부 · 제재	가해아	19	2.19	.55	9.82*** (df=3/223)	B
	피해아	18	2.17	.47		B
	가해/피해아	10	2.02	.38		AB
	일반아	180	1.71	.50		A
허용 · 방임	가해아	19	1.90	.60	6.77*** (df=3/223)	AB
	피해아	18	1.97	.47		B
	가해/피해아	10	1.86	.55		AB
	일반아	180	1.62	.37		A
과보호	가해아	19	1.66	.71	5.17** (df=3/223)	A
	피해아	18	2.19	.54		BC
	가해/피해아	10	2.46	.40		C
	일반아	180	1.94	.58		AB

*p<.05, **p<.01, ***p<.001

<표 5>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별 친구관계 질의 부정적 기능 (N=227)

집 단	N	평 균	표준편차	F(df)	Duncan
가해아	21	2.63	.51	3.33* (df=3/223)	B
피해아	11	2.01	.33		A
가해/피해아	12	2.68	.77		B
일반아	183	2.39	.62		AB

*p<.05

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가해/피해아는 가해아에 비해 보다 어머니를 보다 더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하였다. 가해아, 피해아 및 일반아간과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간에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또래 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역시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가해아와 피해아는 일반아에 비해 스스로 어머니로부터 보다 더 많이 거부되고 제재를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간에는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없었으며, 가해/피해아와 일반아 또한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서로 유사한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피해아는 일반아보다 어머니로부터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에 대한 지각에 있어,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 간에, 그리고 가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간에는 서로 유사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가해/피해아는 스스로 가해아와 일반아에 비해 보다 더 과보호적으로 양육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가해아와 일반아간, 피해아와 일반아간, 그리고 피해아와 가해/피해아간에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해 유사한 정도로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또래괴롭힘 집단별 친구관계의 질

친구관계 질의 긍정적 기능은 자기보고(F(3/223)=1.16, p>.05)와 또래보고(F(3/223)=2.32, p>.05) 모두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친구관계 질의 부정적 기능은 또래보고에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가해아와 가해/피해아는

피해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해아와 가해/피해아는 친구관계의 질의 부정적 기능이 피해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해아, 피해아, 일반아 간에는 친구관계의 질의 부정적 기능이 유사하였다(<표 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점수에 따라 구분된 네 개의 또래괴롭힘 집단, 즉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의 분포를 비롯하여, 또래괴롭힘 집단의 유형에 따라 부부갈등,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또래괴롭힘은 아동 자신과 또래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 역시 보고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견되었다.

또래괴롭힘 집단의 분포와 관련하여,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 집단은 자기보고의 경우 각각 8.4%, 7.9%, 4.4% 및 79.3%이었으며, 또래보고의 경우 각각 9.3%, 4.8%, 5.3% 및 80.6%이었다. 자기보고에 의한 피해아 분포가 또래보고에 의한 경우보다 눈에 띄게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 집단의 분포는 양 보고자간에 유사한 양상을 띠었다. 피해아의 분포에 관한 결과는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의 비율이 19.3%:4.1%이었던 선행 연구결과(신유림, 2006)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보고자에 따른 차이는 또래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해행동과 달리, 피해행동의 경우 또래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아동 자신이 민감하게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아동 개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그 기초가 되는 정보의 종류 및 양과 인지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 또래괴롭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세 집단은 전체의 20%정도에 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과 동일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으나,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보경 등, 2004)에서 가해아, 피해아, 가해/피해아 집단이 전체의 20-25%를 차지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가 각각 15.77%, 13.46%, 6.92%로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였던 국외 연구결과(Schwartz, 2000)는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측정도구상의 차이에 기인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Schwartz(2000)는 아동의 공격/피해적 성향을 자체 개발한 또래지명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일반아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집단의 분포를 정리해 보면, 가해아 집단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가해/피해아 집단은 가장 적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박보경 등(2004)과 일치한다. 이 외에도, 이러한 또래괴롭힘 분포상의 차이는 연구자에 따라 또래괴롭힘의 개념

이나 집단구분의 기준 등이 서로 다른 점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래괴롭힘 집단별 부부갈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해아와 가해/피해아는 일반아에 비해 부부갈등에 더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가해/피해아는 가해아와 유사한 정도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가족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피해아가 부부간 공격성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Schwartz et al., 1997), 가해아는 일반아보다 가정이나 이웃에서 발생한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노치영, 1988; 박보경, 2002; Emery, 1982)과 일치한다. 가족원 간의 갈등적 관계를 많이 경험한 아동의 경우 공격적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이는 학교 상황으로 전이되어 또래친구와 교사에 대한 대응행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연구결과(Frazer, 1996)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이들이 일반아보다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공격적인 갈등상황 속에서 적절한 해결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이는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기보고와 달리,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의 유형에 따라서는 부부갈등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척도가 상대적으로 보다 더 높은 타당도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자기보고와 또래보고를 모두 이용한 기존 연구결과들(박보경, 2002; 신유림, 2006)에서 자기보고 방식의 유용성을 발견하였던 것과 동일하다.

또래괴롭힘 집단의 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 자기보고의 경우 가해아는 네 집단 가운데 어머니를 가장 덜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하였으며, 가해/피해아는 네 집단 가운데 어머니를 가장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함으로써, 양 집단 간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비온정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를 둔 자녀는 타인에게 더 공격적이기 쉽다는 연구결과들(Davies & Cumming, 1994; Dishion, 1990)과 맥을 같이 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가해아, 피해아 및 일반아 간과 피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 간에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다른 정도로 지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동시에 나타내는 아동들이 가해행동만 나타내는 아동들과 달리 어머니를 가장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가해아와 피해아로 이분화시키던 또래괴롭힘 연구가 확장되어 가해/피해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이 집단의 적응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연구결과들(이민아, 1999; 황성숙, 1999; Olweus, 1978, 1993)과 유사한 입장에서, 다음에 제시될 다른 양육행동 요인들과 더불어 뒷부분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일반아에 비해 가해아와 피해아가 어머니로부터 보다 더 거부되고 제재를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해아와 피해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

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안재진 · 이경남, 2002; 최은숙, 1999)과 일치한다. 이는, 일반아는 다른 아동에 비해 부모가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잘 들어주고 관심을 가진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나, 가해/피해아는 부모를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다음으로 피해아, 가해아 순인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이춘재 · 광금주, 2000)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공격에 의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이지원, 1999),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거부와 엄격한 제재가 자녀의 공격성을 발달시키고, 공감과 이타심, 협동심과 같은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Eisenberg & Fabes, 1998)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거부되거나 제재를 받으며 자라는 아동은 문제상황에서 적절한 해결능력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어 또래관계에서 공격성을 발휘하거나 혹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발견된 특징적인 결과는 피해아가 일반아에 비해 자신의 어머니를 보다 더 허용 · 방임적으로 지각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아의 대부분이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부모의 방임적 태도를 많이 겪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도현심 · 최미경, 2001)나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 ·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괴롭힘의 피해아가 되기 쉽게 한다는 연구결과(노경선 · 심희옥, 2004)와 일치한다. 즉,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은 적절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즉, 또래관계에서 가해아는 이러한 아동을 '나약한 아동'으로 여기고 나아가 괴롭힘의 표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Ladd & Ladd, 1998).

마지막으로,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가해/피해아가 가해아나 일반아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피해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연구결과들(Bowers et al., 1994; Schwartz et al., 1997)과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가해/피해아가 부모의 과보호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피해아와는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해아와 일반아간과 피해아와 일반아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발견된 점은 매우 특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피해아 부모의 특징적 양육행동으로 잘 알려진 기존 연구결과들(Finnegan et al., 1996; Olweus, 1978; Schwartz et al., 1993; Schwartz et al., 1997)과 비교할 때는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역시 피해아는 가해/피해아와 더불어 어머니를 과보호적으로 지각하고는 있었으나, 네 집단간의 비교 과정에서 피해아는 동시에 일반아와도 유사한 정도의 과보호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아동을 과보호적으로 양육하고 아동 또한

그렇게 지각할 때 아동은 수동적 행동특성을 보이며(Olweus, 1978), 부모로부터 과보호적인 양육을 받은 아동은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도현심 · 최미경, 1998; Bowers et al., 1994), 주로 피해아의 측면에서만 그 결과를 제시할 뿐 가해/피해아를 포함한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가해/피해아와 다른 세 집단간의 두드러진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가해/피해아 집단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도 동시에 당하는 아동이 부모의 과보호와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가해/피해아 적응 문제의 심각성에 초점을 둔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는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앞서 부부갈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는 또래괴롭힘 측정에 있어서 보고자에 따른 문제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또래괴롭힘 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의 특징적인 차이를 종합해 보면, 가해아와 피해아는 높은 거부 · 체제적 및 허용 · 방임적 양육을, 가해/피해아는 높은 온정 · 수용적 양육과 동시에 높은 과보호적 양육을, 그리고 일반아는 높은 온정 · 수용적 양육과 동시에 낮은 거부 · 체제적, 허용 · 방임적 및 과보호적 양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 아동발달결과 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재확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가해/피해아의 경우 온정 · 수용적이면서 과보호적인 양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발견된 결과는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피해아는 온정 · 수용적 양육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아와 유사한 반면, 과보호적 양육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아와 다르다는 점에서,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친구관계 질의 긍정적 기능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아의 친구관계의 질 혹은 친구의 지지는 일반아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며, 가해/피해아나 피해아에 비해 낮지 않았던 연구결과들(이은혜 · 고윤주, 2004; 이춘재 · 광금주, 2000)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친구관계 질의 긍정적 기능의 경우와 달리, 또래보고에 의한 친구관계 질의 부정적 기능은 가해아와 가해/피해아가 피해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을 나타내는 가해성향을 가진 아동이 친구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갈등과 경쟁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적대적이고 비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함으로써(Crick & Grotpeter, 1995),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결과(Keenan et al., 1995)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친구관계의

질에 있어서 역시 또래괴롭힘의 보고자에 따라, 즉 자기보고와 다르게 또래보고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결과는 숙고해 볼 만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는 또래보고와 달리 자기보고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된 점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자기보고가, 또래환경과 관련되어서는 또래보고가 그 타당도를 발휘함으로써, 아동의 또래괴롭힘 관련 연구를 포함한 아동발달 연구에서 보고자가 속한 맥락(context)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또래괴롭힘 집단별 부모의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에서의 차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특히 가해/피해자가 일반아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이중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또래괴롭힘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고려할 만한 유의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온정·수용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제재, 허용·방임 및 과보호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각각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부정적 발달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부수적으로,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의 보고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인상적이다. 즉, 또래괴롭힘을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결과가 대체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그 타당도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친구관계의 질과 같이 관련변인의 맥락에 따라 또래보고가 더 높은 타당도를 보일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관적인 결과가 발견되어 또래괴롭힘 집단 구분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각 집단의 표준화된 기준 점수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Schwartz와 동료들(1997)에 근거하여 또래괴롭힘 점수의 평균을 기초로 각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상대적 집단 구분 방법은 본 연구대상의 특성에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높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 구분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아를 제외한 다른 각 집단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으로서, 세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는 보다 많은 수의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숫자상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보고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아동 자신, 또래, 어머니 등 다양한 보고자에 의해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구방법론적으로 보다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제 3자에 의한 관찰법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유형의 또래괴

롭힘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의 질 등 또래괴롭힘의 관련변인들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및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선행 변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또래괴롭힘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해행동이나 피해행동 각각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양자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이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의 정도에 따라 각 집단을 구분하여 또래괴롭힘 관련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해아와 피해아 뿐만 아니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동시에 나타내는 가해/피해아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가 또래괴롭힘의 관련 변인으로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단편적으로 살펴본 것을 확장하여, 본 연구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에 속하는 부모의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롯하여 아동 자신의 친구관계의 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또래괴롭힘의 관련요인으로서 좀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또래괴롭힘을 주제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유의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김민정(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미(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하·김영아(2007). 유아들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교사 효능감. *아동학회지*, 28(6), 217-233.

김영아·김연하(2008). 유아교육기관 내 또래 괴롭힘 현상에 대한 교사, 예비교사, 어머니의 인식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79-301.

김용태·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혜원·이혜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경선·심희옥(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 및 또래괴롭힘 경험. **아동학회지**, 25(6), 241-257.
-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4.
- 도현심·최미경(2001).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경험에 관한 심층면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31-47.
-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한세영·최미경·도현심(2004).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45-54.
- 박영신·김의철(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63-89.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정·김경연(2004).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 손진희·홍지영·양재혁(1998).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 심선보(2000).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유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유림(2006).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서 측정방법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차이: 자기보고법과 또래 지명법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41-150.
- 안재진·이경남(2002).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9-20.
-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8), 31-52.
- 이민아(1999). 초등학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은혜·고윤주(2004).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25(4), 1-16.
- 이점숙·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지원(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박금주(2000). 집단 따돌림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13(1), 65-80.
- 이혜경·김혜원(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 장휘숙(2001). 아동발달. 서울: 박영사.
- 전재천(2000).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2(4), 115-126.
- 최미경·도현심(2001).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경험에 관한 심층면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31-47.
- 최은숙(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숙(1999). 학교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난(2000).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실태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e, H.(1997). *The developing child(8th ed)*. N.Y.: Longman.
- Berndt, T. J.(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W. W.(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346-365)*.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ocial Personal Relationship*, 11, 215-232.
- Buehler, C., Anthony, C., Krishnakumar, A., & Stone, G. (1997).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6, 223-247.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Gest, S., & Garipey, J-L.(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15-823.
- Camodeca, M, Goossens, F. A, Terwogt, M. M, Schuengel, C. (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Stability and Link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1(3), 332-345.
- Crick, N. R., & Bigbee, M. A.(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 337-347.
- Crick, N. R. & Grop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ishion, T. J.(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 Doh, H.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49-162.
- Egan, S. K. & Perry, D. G.(1998). Dose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Emery, R.(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y Bulletin, 92*(3), 310-330.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1996). Preoccupied and avoidance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78.
- Fauber, R., & Long, N.(1991). Children in context: The role of family in child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13-820.
- Frazer, M.(1996).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cological-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Violence. *Social Work, 41*(4), 347-361.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Graham, S. & Juvonen, J.(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582-599.
- Gropeter,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Development Psychology, 29*, 611-621.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rtup, W. W.(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Karatzias, A., Power, K. G., & Swanson, V.(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ottish secondary schools : Same or separate entities? *Aggressive behavior, 28*, 45-61.
- Keenan, K., Loeber, R., Zhang, Q., Stouthamer-Loeber, M. & Van Kammen, W.(1995). The influence of deviant peers on the development of boys' destructive and delinquent behavior tempor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7*, 715-726.
- Kumpulainen, K., Rasanen, E., Henttonen, I., Almovist, F., Kresanove, K., Linna, S. L., Moilanen, I., Piha, J., Puura, K. & Tamminen, T.(1998). Bullying and psychiatric symptoms among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2*, 705-717.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dd, G. W., & Ladd, B. K.(1998).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50-1458.
- Luster, T., & Okagaki, L.(2005).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elson, D. A., Hart, C. H., Yang, C., Olsen, J. A., & Jin, S.(2006). Aversive parenting in China: Associations with chil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7*, 554-572.
- Nelson, D. A., Robinson, C. C., & Hart, C. H.(2005).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of preschool-age children: Peer status linkage across informant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6*, 115-139.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Freud, N. & Gault, H.(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N.Y.: John Wiley & Sons.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 Parker, J. G. & Gottman, J. M.(1989).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a relational context: Friendship interact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In Berndt, T. J. & Ladd, G. W.(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95-131). N.Y.: Wiley.
-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Factors relating to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2), 216-224.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ubin, K. H., Dwyer, K. D., Booth, C. L., Kim, A. H., Burgess, K. B., & Rose, L. K.(2004).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4), 326-356.
- Schwartz, D.(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81-192.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chwartz, D., Dodge, K. A., Petit, G. S., & Bates, J. E.(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chwartz, D., Proctor, L. J. & Chien, D. H.(2001). The aggressive victim of bullying : Emotional and behavioral dysregulation as a pathway to victimization by Peers. In J. Juvonen &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147-174). N.Y.: The Guilford Press.
-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접수 일 : 2008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8년 08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23일